

2006년 항공화물시장 전망

대한항공 화물전략개발부 과장 김수연



2006년도에는 미국 경제가 불균형을 조정하는 과정이 계속되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고유가와 달러 환율 하락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과거 수십년간 초고속 성장세를 보여온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률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전년대비 약 3%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 국가들의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경우에는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내 경제는 2005년 말부터 내수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 보다 낙관적인 상황이다.

2006년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율이 보다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약 5%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항공화물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항공화물 수요는 과거의 고속성장 추세가 한풀 꺾여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LCD 및 자동차 관련 산업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타 품목에 대한 항공 수출은 전년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반적인 항공화물 수요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년

대비 약 3% 내외의 성장률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환율과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추세가 전년 이어 2006년에도 수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항공화물 시장에 대한 전망을 노선별로 살펴보면, 우선 미주 노선은 고유가가 지속되고, 미국 경제 성장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따른 항공화물 수요의 둔화로 약 2%대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LCD 모니터, 휴대전화 같은 IT 제품군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라인이 중국으로 옮겨가는 추세가 계속되면서, 한국발 미주행 수요의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 의류 등은 쿼터제가 폐지됨에 따른 한국업체들의 경쟁력 약화와, 이에 따른 투자 부진으로 물량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2006년 상반기까지 엘라바마 현대자동차 공장행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SEA & AIR 수요는 중국발 미주행 항공 공급이 증대되면서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주 노선은 전자 관련 대기업들이 동유럽에 생산법인을 설립할 가능성 높고, 기존에 수송되던 물량도 호조를 보여 약 5% 대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2006년 1분기에는 LG 필립스 파주 공장이 가동되고 S-LCD가 안정적으로 생산되어 TFT-LCD,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에 대한 수출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Plan IV



2분기에는 뚜렷한 수요가 부족하여 공급초과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본격적인 성수기에 접어드는 9월부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경이면 대기업들의 동유럽 생산법인 추가 설립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어 공급 부족 현상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10월 이후부터는 전자, 원단, 선박 부품, 자동차 등 물량의 대량 출하로 정기편 뿐만 아니라 전세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 노선은 인도 현지에서 노키아 공장이 가동됨에 따라 한국발 수출 물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 LCD, IC, HDD 등 전자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원단 물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노선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도쿄행을 위주로 하는 수요 패턴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본 물량인 LCD, HDD, 반도체 등 전자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LCD 물량은 해운으

로 전환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밖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본행 휴대전화 물량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어 새로운 수요로 부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2005년 통관 검사 강화로 급감하였던 섬유 물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노선은 홍콩, 상하이행 대기업 전자제품의 해운 수송량이 증가하여 항공화물 호조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베이징, 텐진행 LCD, 자재 물량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양주 노선은 해당 국가들의 경제가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전년 대비 뚜렷한 수요 변동 요인이 없는 상황이다. 항공화물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키아, 삼성, LG의 휴대전화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신모델 공급 및 교체시기가 가속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전년비 약 2% 대의 성장이 예상된다. **물류**

